

AUTHOR 이호우

TITLE 한국교회 부흥에 끼친 박윤선의 신학과 신앙

IN 신학정론

vol.25 no.2 (November,2007): 287-316

회개하는 것이며, 다만 우리의 내주성 죄악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부흥에 대한 우리의 염원은 꺼지지 않는 불처럼 마음 깊숙이로부터 뿔뿔 타오른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은 온통 부흥에 대한 갈구로 뒤덮인다. “은혜와 권능의 하나님여! 우리의 심령을 통촉하십시오! 우리를 불처럼 여기시고 교회의 처지를 살피사 다시금 성령을 부어 주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주의 영광스러운 부흥을 목도케 하소서!”

[신학정론 2007. 11. 제25권2호 pp. 287-316]

정임신학강좌

한국교회 부흥에 끼친 박윤선의 신학과 신앙

[이 호 우 | 한국성서대학교]

1. 들어가기는 말

개신교회가 들어온 지 120년, 그 동안 한국교회는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왔다. 한국교회의 빠른 성장에 동력을 제공해 준 것은 짧은 역사 속에서 각각의 시기에 일어났던 부흥운동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현금의 한국교회는 1907년에 임했던 평양 대부흥 100주년을 맞이하여 어느 시기보다 더 또렷하게 부흥 재현을 꿈꾸고 있다. “부흥”을 주제로 한 수많은 기념행사와 집회 그리고 다양한 서적과 음반들은 부흥 재현을 기대하는 한국교회의 염원이 얼마나 간절한지 잘 증명해주고 있다. 하지만 부흥을 갈망하고 체험했던 초기 한국교회 의 기록한 유산은 ‘Again 1907’이라는 듣기 좋은 광고 문안으로 포장되어 현 세대 성도들의 감성만 자극하고 흥분시키고 있지 않는지 자성(自省)해 볼 필요가 있다.

정임(正巖) 박윤선(朴允善, 1905-1988) 박사는 1907년 부흥운동의 주역인 김선주와 같은 부흥사가 아니다. 또한 김의도와 같은 인물도 아니다. 해방

이후 기도원과 교회를 통하여 활동한 대중적 전문 부흥사는 더욱이 아니다. 총신대회원 박용규 교수는 박윤선의 생애와 활동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물론 시대에 따라 견해를 달리하겠지만 필자의 관점에서는 1936년 그의 공식적인 첫 사역인 『표준성경주석』 편집 일을 맡은 후 봉천신학교, 고려신학교, 개혁신학교, 총회신학교, 합동신학교에서 교수사역, 40여년에 걸친 신구약 성경 66권의 주석집필, 봉천 모 교회, 진혜 모 교회, 동신교회, 부산 모 교회, 한성교회 등에서 주일 강단을 지켜오면서 박윤선이 한국교회사에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아마도 권빈주의 개혁신학, 주경주석, 교회를 위한 신학, 그리고 삶이 동반된 신학으로 집약할 수 있을 듯하다.¹⁾

장기의 평가처럼, 박윤선은 신학교 교수요, 주경신학자요, 그리고 목회자였다. 하지만 그의 생애와 활동은 한국교회에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이라는 부흥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주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현 한국교회에 주어진 ‘부흥 재현’이라는 간절한 외침이 열매 없는 무적판 던져주고 사라져 버리는 이벤트가 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이 논문을 통하여 역사적·교회사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신앙적 순수함과 성서에 기초된 일관성으로 한국교회의 참다운 성장과 부흥을 위해 일생을 바쳤던 박윤선의 공헌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박윤선의 부흥 이해와 부흥 체험

1. 박윤선의 부흥 이해

1) 박용규, 『한국 교회의 정암 박윤선 박사의 역사적 의미』, 『죽산 박형통과 정암 박윤선』 (수원: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2005), 182.

박윤선은 부흥사도 부흥 이론학자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윤선의 글속에 서 부흥에 대한 정의나 그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들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 하지만 부흥에 대한 간절한 열망과 인식은 그의 글과 그의 삶 속에 매우 명백하게 배어있다. 부흥(revival)은 라틴어 *revivere*에서 파생된 것으로 “다시 살다”(to live again)의 의미이다. 이 ‘부흥’에 대한 어원적 의미는 성경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에스겔 37장에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예언이 수록되어 있다.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고 기록하고 있다. “너희가 살리라”(you will come to life)는 구절은 “생기”(breathing)의 개념을 동반한다. 이 생기는 생명체에 생명력을 제공한다. 생기가 없는 생명체는 죽은 것이다.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 생명력을 공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박윤선은 에스겔 37장 5절을 다음과 같이 주해했다.

이 말씀은 “마른 뼈들”로 하여금 부활케 하는 것이다. 그것은 선지자가 그것들을 부활시킬 하나님의 계획을 전할 뿐이고, 사람의 어떤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다. 진도(傳道)는 언제든지 그렇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할 뿐이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만능(萬能)을 주장한다.²⁾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부흥운동의 동력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며 그 메세는 그분의 말씀이다. 박윤선은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이 소망 없어 보이는 인생, 곧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만을 본다면, 낙심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용기와 소망을 가져야 된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달려 있다.³⁾

2) 박윤선, 『성경주석 에스겔, 다니엘』 (서울: 영음사, 1977), 271.

3) Ibid., 275.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지은 죄로부터 참으로 애통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그들은 “다시 살리신다.” 이것이 부흥이다. 때문에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다. 미국 제1차 대각성운동의 주역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나 그 밖의 복음주의 학자들은 부흥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An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즉 성령의 역사임을 강조한다.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백성을 변화시키며 비 기독교인을 회심시키는 특별한 결과를 가져온다. 박윤선도 같은 견지에서 성령의 역사로 만 신령한 생명운동 즉 부흥운동이 가능하고 교회에 절대 필요하다고 에스켈 37장 주해를 통하여 강조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훌륭한 교리체계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인체에 배가 중요한 것처럼, 교회는 교회에 중요하되(7~10), 성령의 역사로 되는 신령한 생명 운동이 교회에 절대 필요하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합체 기도해야 한다.⁵⁾

부흥은 인위적 조직이나 운동으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부흥은 성령의 특별한 사역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작업이다. 교회는 이러한 부흥을 경험해야 한다. 부흥은 성령의 역사이며 기독교회의 역사이다. 성령의 역시로

4) Jonathan Edwards, *Jonathan Edwards on Revival*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84), 109-147; James I. Packer, "Renewal and Revival," *Revival* 62 (April-May, 1967): 14-17.

5) 박윤선, 『성경주석 에스켈, 다니엘, 275-6, 부흥은 성령과 기독교 역사의 주체이다. 사무엘의 미스와 기도운동(삼상 7장), 악호시밧(약대하 19장)과 히스기야의 기도(왕하 19장), 에스라의 말씀 강론(느 8장), 오순절 성령임재(행 2장) 등의 기도는 성령의 특별한 활동을 말하는 부흥에 관한 이야기이다. 중세의 수도원 운동이나 공동체 운동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위클리프(J. Wycliffe)나 후스(J. Huss) 그리고 종교개혁도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부흥운동이었다. 전형적인 부흥운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종교 개혁자들의 외침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회복하려는 운동이었다. 합리주의와 이신론이 득세하는 18세기에는 유럽대륙에서 경건주의가 일어났고, 영국에서는 웨슬리 신앙운동이 그리고 미국에서는 1차 대각성운동이 일어났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이 고개를 틀기 시작할 1800년대 중반에는 찰스 스펄전(Charles H. Spurgeon, 1834-1892)과 드와이트 무디 같은 전도자들이 의해서 또 다시 세계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통한 부흥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부흥은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서 공히 찾아 볼 수 있는 내용들이다.

되어지는 이러한 부흥이 없으면 교회는 그 생명력을 소진하게 될 것은 명명백백하다.

박윤선은 사도행전 6장 주석에 “초대교회의 진흥원인”(행 6:1-15)이라는 설교를 실었다. 그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되었다(7절). 그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답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교회 내(內)의 불평을 잘 해결해 주었기 때문이며, 둘째, 사도들이 집사들을 세워 분업적으로 각기 직무를 담당시켰기 때문이고, 셋째, 지도자들이 기도와 말씀 전하기에 전무하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세 번째 요소인 기도와 말씀 전파를 “교회 부흥의 비결”이라고 강조하였다.⁶⁾

기도가 간절하면 교회에 부흥이 온다. 초대 교회 지도자들은 기도를 전무하였으니 그 만큼 크게 교회가 진흥하였다(7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전파에 전무한 것이 그때 부흥의 원인이 되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업적(業績)을 가지고 되어 나가려면, 교만하여 지며 파당이 많이 생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니(렐전 2:2)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야 왕성한다.⁷⁾

요약하면, 박윤선은 부흥을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그 부흥의 통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본다. 교회는 그와 같은 부흥을 시모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박윤선을 힘주어 말하였다.

2. 박윤선의 부흥 체형

개인적인 신앙의 헌신과 복음전도 나아가 교회부흥에 대한 박윤선의 열정은 숭실전문학교 재학시절(1927~1931)부터 선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비록

6) 박윤선, “초대 교회의 부흥(행 6:1-7), 『영생의 원천』(서울: 영음사, 1970), 133. 사도행전 주석에 나오는 설교와 거의 같은 내용을 이루고 있다.
7) 박윤선, 『성경주석 사도행전』(서울: 영음사, 1977), 156.

신학 수업을 정식으로 시작하기 전이었지만, 박윤선은 신학생 못지않은 열정으로 기도와 전도운동에 그의 승전 4년 세월을 보냈다. 동료 6명과 함께 새벽마다 1시간 쯤 걸어서 모린봉에 올라가 기도하였으며, 망월 중에는 동료들과 전도단을 조직하여 지방을 순회하며 설교와 전도활동을 하였다. 한때 만주 봉천까지 순회전도를 다녀오기도 했다. 또한 승전 4년간 모린봉 뿔봉네에 있는 가현교회를 맡아 주일마다 설교와 심방을 하였다.⁸⁾ 길선주 목사가 승전의 한 경건회 시간에 참석하여 설교한 적이 있었다. 설교를 들은 후 길선주 목사에 대한 첫 인상을 “사경회(喪經會) 인도자라기보다는 부흥가였다”라고 했는데,⁹⁾ 그의 표현은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이다. 신학을 공부하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풀어가는 설교, 성경 중심적인 설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1946년 9월부터 부산 고려신학교에서 신학강의를 시작하였다. 해방 이후 정치와 사회가 무질서 할 즈음, 신비주의 운동과 탈선된 부흥집회 그리고 박태신의 전도관 등의 동장은 한국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때 박윤선은 “일반 교우들에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¹⁰⁾ 개탄하였다. 그러던 중, 1950년의 625 동란이 발발하기 직전에 고려신학교에서 큰 회개운동이 일어났다.¹¹⁾ 그때의 놀라운 정황을 그의 지서전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이른 봄 어느 날 경건회 시간에 설교 담임이었던 나는 요한복음 21장 15-17절의 말씀을 읽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로 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을 근거로 설교한 후에 학생들 중에서 누구든지 한 사람 일이나 기도하라고 말하였다. 이때에 어느 학생이 일어나 기도하였다. 그의 기도는 침으로 눈물절고 진실한 내용이였다.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편이어 다른 학생이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하였고, 또 그 뒤를 이어 많은 학생들이 연속해서 기도했으므로 그 장내 전체가 기도의 분위기로 팍 찼다. 그러므로 학교측에서도 강의를 전폐하고 학생들의 기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협력하였다. 학생들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저마다 앞에 나아가 죄를 자복했고, 상상도 못할 죄까지 숨김없이 모두 토해냈다. 그것은 사람 앞에 죄를 고백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백함이였다. 그 분위기는 눈물, 기쁨, 사랑으로 충만하였었다. 학생들의 자복하는 기도는 종일 이어졌고, 그 기도는 한 주간이나 계속되었다.¹²⁾

이 비상한 현상의 현장에 있었던 삼군식 목사는 그 경건회 시간을 통화와 자복이 계속된 부흥의 시간이었다고 했다.¹³⁾ 그와 같은 부흥 현상은 1907년 1월에 일어난 평양 대부흥의 회개운동과 일맥하는 점이다. 1907년 부흥은 강력한 회개와 함께 임했다.¹⁴⁾ 미국 부흥운동사(史)를 살펴보다라도 제1차 대각성운동을 비롯한 거의 모든 부흥운동 기간에 죄의 고백과 즉각적인 회개가 반드시 일어났다.¹⁵⁾ 회개와 영적 각성은 바로 1907년 부흥운동의 직접적 현상이었다.¹⁶⁾

12) 박윤선, 『성경과 나의 생애』, 100. 참조. 박윤선, “나의 생애와 신학,” 『신학평론』 7권 2호 (1989. 12), 182.

13) 삼군식, 『박윤선 목사의 생애』 (서울: 도서출판 영문, 1996), 86.

14) Graham Lee, “How the Spirit Came to Pyeong Yang,” *Korea Mission Field* 3 (March, 1907): 35. 그레함 리(Graham Lee) 선교사는 1월 14일 밤에 일어난 회개 현상은 다음과 기술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고꾸라져 울었다. 그리고 나서 바닥에 엎드려 죄인이라는 완전한 고통 속에서 주님으로 바닷을 쳤다. 나의 요리는 회개를 하려고 애쓰며 그 가운데 거꾸러져 방 건너 쪽에 있는 나에게 소리쳤다. ‘목사님, 나에게도 회개가 있는지, 용서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바닥에 엎드려 울고 또 울며 거의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 때때로 회개의 고백 후에 모든 회종이 통성기도를 했다. 수백 명의 회종이 통성기도를 한 효과는 무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였다. 다시 회개의 고백 후에 그들은 침을 수 없는 울음을 터트렸고 우리 모두 함께 울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모임은 기도와 고백과 눈물로 새벽 2시까지 계속되었다.”

15) Lewis A. Drummond, “D. L. Moody and Revivalism,” *Mr. Moody and the Evangelical Tradition*, George, Timothy, ed. (London · New York: T & T Clark International, 2004), 103.

16) “The Direct Effects of the Revival,” *Korea Mission Field* 4 (May 1908): 70.

8) 박윤선, 『성경과 나의 생애』 (서울: 영문사, 1992), 46-48.

9) Ibid., 49.

10) Ibid., 99.

11) 박윤선, “우리가 서 있는 역사적 입장,” 『피수군』 55호 (1956. 9), 9-15.

1950년 봄에 일어난 이 기도 운동은 고려신학교 학생들 사이에 회개와 각성을 촉진하는 부흥현상을 낳았고, 박윤선 스스로 그 부흥현상을 체험하게 된 것이다. 이 회개의 기도 운동은 요원의 불길처럼 점차 퍼지기 시작했다. 고려고등성경학교(부산 부민동 소재)를 비롯하여 고려측 교회 전체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625 동란 이후 박윤선은 또 다시 부흥운동을 주도하고 그 현상을 체험하게 된다. 전쟁으로 인해 부산에는 피난민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928 서울 수복이 있기 전에 한성동 목사를 비롯한 몇 분들과 의논을 걸쳐 초량교회에서 소위 “전국 피난교역자 부흥회”를 일주일간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때 부흥회의 목적은 교역자 자신들이 자이반성(自我反省)에 따른 회개였다.”¹⁷⁾ 한성동, 박형동, 김치선, 그리고 박윤선 등이 이 부흥회의 주강사였다. 매일 새벽기도회와 낮 성경공부 그리고 저녁집회를 돌아가며 인도하였다. 때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가운데 참석한 교역자들 거의 대부분이 크게 통회하며 자복하는 회개를 하기 시작하였다. 다시금 회개운동이 일어난 것이다. 특히 부흥집회 셋째 날 새벽설교를 맡은 박윤선은 헌부선 신교사에게 들은 신사침배 반대운동을 상세히 증거하면서 신사침배의 죄를 그 자신부터 여러 교역자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하였다. 그러자 청중석의 목회자들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회개의 기도가 연이어졌다. 그 집회는 청중들의 요구로 한 주간 더 계속되었다. 회개운동의 부흥 현상은 그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다. 곧이어 낙동강 유역의 울산과 온산에서도 부흥집회가 열렸고, 역시 큰 회개운동이 일어났다. 또한 박윤선은 한상동과 이희인 두 목사와 함께 제주도 건너가 서부교회당에서 피난 교역자들을 위한 집회를 한 주간 개최하였다. 이 집회에서 도 동일한 회개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다. 그 이후 고려신학교 교수 재직시절 내내, 박윤선은 주중에는 신학교 강의를 하였고, 주말이면 경남 각지의 지방교회를 순회하며 부흥집회를 인도하였다. 그때마다 은혜와 감동적인 설교로

17) 박윤선, “우리가 서 있는 역사적 입장”, 10.

많은 사람을 감회시켰다.

III. 부흥을 위해 넘어야 할 한국교회의 개혁 과제

1986년 11월의 「신학정론」 4권 2호와 1987년 5월의 5권 1호 그리고 1988년 7월의 6권 1호에 “무엇을 개혁해야하나”라는 제목의 글을 세 번에 걸쳐 집필하였다. 이 글은 한국교회에 담긴 그의 마지막 유언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 내용은 “현하 한국교회가 개혁해야 할 과제”라는 제목으로 묶어져 그의 저서전 『성경과 나의 생애』에 실려 있다. 이 글에서 박윤선은 몰광주의 폐단, 사제주의의 부당성, 사역장 평등의 원리 상실, 교회 행정의 부조리, 교회보다 교회의 조직을 과대평가하는 오착, 교회관의 문제점, 신자들의 진리 지식 문제 등 7대 개혁 과제를 제시하였다.¹⁸⁾ 그의 글에 널리 지적되는 또 다른 개혁의 과제는 교권주의이다. 이 모든 문제들은 한국 교회가 바르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 큰 걸림들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특히, 이들 중에서 몰광주의와 교권주의 문제는 그가 꼽는 대표적인 개혁의 과제들이다.

첫째, “몰광주의는 성경적이 아니다”¹⁹⁾ 박윤선은 논박했다. 한국 기독교는 사구 기독교 지도자들이 볼 때 놀랄만한 두 가지 일이 있다. 첫 번째는 한국교회의 논부신 교회 성장 때문이다. 한국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유래 없는 교회성장을 경험하였다. 두 번째는 인구의 20퍼센트에 달하는, 즉 천만에 가까운 성도를 자랑하는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놀란다.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교회 성장 지상주의에 치우쳐 있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교회의 외향적 성장이 곧 부흥이요 부흥은 곧 교회의

18) 박윤선, “현하 한국 교회가 개혁해야 할 과제”, 『성경과 나의 생애』 (서울: 영음사, 1992), 240-251.

19) Ibid., 240.

의학적 성장이다. 결국 부흥을 “물량적” 척도로 측정하려고 하였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성도들에게 성숙과 성장을 강조하지 않는 병폐 현상을 낳고 있다. 박윤선은 이러한 물량적인 측정법을 적용하는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인터넷까운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교회는 무엇인가? 오늘 신자들의 교회란은 어떠한가? 신자들의 예배처소인 건물이나 신자들의 수효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는 정도는 아닌가? 건물에 의해 교회의 명분을 유지하려 한다든지, 모이는 자의 수효에 의해서 힘을 내는 것 같은 것은 올바른 교회란이 아니다.²⁰⁾

수적 성장과 외형적 성장에 편향된 부흥 개념은 한국교회를 결과주의 또는 번영주의로 치닫게 하고 있다. 이것이 박윤선이 지적하는 한국교회가 풀어야 할 중대한 과제이다. 또한 그는 학문과 소명 그리고 인격 등 기본적인 소양에 있어서 충분한 자격과 훈련을 거치지 않은 목회자가 다량으로 배출되는 것도 물량주의의 한 폐단이라고 했다.²¹⁾

근년에 이르러 물량주의가 팽창해 가면서 교회는 그 성결성(혹은 순결성) 교리를 지키지 않는 경향이 보인다. 성결성 교리는 교회의 5대 본질(단일성, 보편성, 성결성, 사도성, 불멸성) 가운데 하나로서 그 중요함을 말할 것도 없다. 이것은 생활의 순결을 말하는 것이다.²²⁾

박윤선은 교회의 참된 표지문 하나님 말씀의 선포, 성례의 바른 시행, 권징의 바른 집행 등 세 가지 요소를 꼽았다.²³⁾ 그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대하여 이렇게 강조하였다. “성경과 부합해야 참된 교회이다. 성경의 권위가 교회의 권위보다 앞서며 또한 그것이 교회의 기초이기 때문이다.”²⁴⁾ 말씀의

20) Ibid., 248.

21) Ibid., 240-1.

22) 박윤선, 『교회 개혁의 성업과 교리문제』, 『성경과 나의 생애』 (서울: 영음사, 1992), 233.

23) 박윤선, 『개혁주의 교리학』 (서울: 영음사, 2005), 377-8.

선포와 그 권위에 대한 인정은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 매우 필수적인 요소이다. 교회에 주어질 가장 고귀한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하는 데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자의 영혼을 죽음으로부터 살리며 그리고 신자의 영혼에는 영적 각성(부흥)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된다.²⁵⁾ 교회는 신자들에게 “성결”의 삶을 각성시킨다. “성결의 지혜를 받은 신자는 영적 허욕을 버리게 되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행하며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박윤선은 강조한다.²⁶⁾

둘째, 교권주의 또한 교회부흥을 위해 넘어야 할 개혁의 과제임을 박윤선은 그의 글 도처에서 밝히고 있다.

선교 100주년을 맞이한 우리는 한미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한국 교회의 성장에 세계 교회가 바라보고 있고, 또 우리 주님께서 지켜보신다. 그런데, 이 땅에 잠어진 개혁주의 교회(혹은 장로교회)가 근년에 이르러서 하나님 중심의 공회주의에서 인간의 교권주의로 바뀌어지는 현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²⁷⁾

박윤선은 그의 인생에 큰 충격을 주었던 교회와의 갈등, 특히 교권파와의 갈등을 몇 차례 경험하였다. 예를 들어, 1946년부터 14여년간 목회자와 신회자로 몸담았던 장로교 고려파를 떠나는 사건이 1960년에 일어났다. 1957년, 교회 건물 소유권 논쟁을 세상 법정을 통해 해결할 것을 주장하는 송상석 목사와 그의 반대 입장을 가진 박윤선 목사간의 갈등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심해졌다.²⁸⁾ 그 외중에 “교권주의와 결탁되면서 고려파 인에 반(反)

24) 박윤선, 『헌법주석』 (서울: 영음사, 1991), 32.

25) 박윤선, 『성경주석 에스겔, 다니엘』, 275.

26) 박윤선, “영하 한국 교회가 개혁해야 할 과제,” 248-9.

27) 박윤선, “교회 개혁의 성업과 교리문제,” 233.

28) 박윤선, “나의 길어가는 길,” 『파수군』 61 (1957. 3), 14-18.

박윤선 정서가 조용히 확산되었다.”²⁹⁾ 더욱이 1960년 7월 허순에 일어난 소위 “스푼너(Arthur B. Spooner) 전교사 사건”으로 인해 더욱 갈등은 표면화 되었다. 스푼너 전교사가 주일날 미국으로 출국하는 바람에 그를 환송하며 선상에서 간략히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주일성수의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이다. 결국 이 문제가 확대되면서 박윤선은 고려파와 결별하게 된다.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 주일성수의 문제였으나, 실제적으로는 당시 고려파의 실권을 쥐고 있던 목회자들 측과 꺾어야 했던 교권의 문제가 더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³⁰⁾

1980년 11월, 박윤선은 1963년부터 17년간 교수와 신학자 그리고 목회자로 활동하였던 정로교 합동측과 총회신학교와 결별하고 합동신학교 설립에 협류 하였다. 합동신학교 협류에 대한 여러 평가가 있으나, 총신대학교 박용규 교수의 평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윤선이나 그에게 우호적인 이들의 해석에 따르면 합동신학교의 출범은 신학적 문제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반교권주의 정서에서 비롯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이영수 목사로 인해 총신의 교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신복음, 박형용, 김영혁, 윤영택을 중심으로 한 젊은 교수들이 박윤선과 함께 총신을 떠나 1980년 10월 28일 정로교 개혁주의의 가치를 걸고 남서울교회에서 개혁신학교를 시작하면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문제는 학생들이 학교 문제에 불만을 토로하고 사정을 추궁하면서 발화되었고 학교 당국과 이사회가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고 교권주의도 학생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그 중심 학생들을 중징계 하면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다는 것이다.³¹⁾

29) 박용규, “한국 교회와 정암 박윤선 박사의 역사적 의미”, 『죽산 박형용과 정암 박윤선』

(수원: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2005), 150-6.

30)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 연구』, 장동민 역 (서울: 한국 기독교 역사 연구소, 2000), 273-4, 281.

31) 박용규, “한국 교회의 정암 박윤선 박사의 역사적 의미”, 162-3. 참조, 김영제, 『박윤선: 경건과 쇄신을 추구한 개혁신학자』 (서울: 살림, 2007), 230-42.

당시 총신의 교무처장으로 분규의 환경에 있었으며, 후에 합신 설립에 중심 역할을 했던 신복음 박사는 그 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술회하였다.

한국교회는 날이 갈수록 어지러워지기만 하였다. 특히 합동측 교단은 교권주의자들 에 의해서 교회가 농락당하고, 교권싸움, 지방색, 물량주의, 교역자들의 허세와 무기력 등으로 혼란은 날이 갈수록 가속화되어 갔다. 마침내 교권주의자들의 손은 총회 직영신학교인 총신대학까지 뻗쳐 교수들의 권위와 자유를 짓밟고 교수직을 자유로이 수행할 수 없게 만들었다.³²⁾

박윤선과 그의 동료 교수들은 합신 설립 배경을 “합동의 교권주의로 인해 총신에서 온전한 신학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떠나야 했다”고 말한다.³³⁾ 신학적인 문제로 총신을 떠난 것이 아니라 교권 문제로 떠났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박윤선이 겪었던 1960년 고려신학교와의 결별 그리고 1980년 총회신학교와의 결별, 이 두 가지 사건은 분명 교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교권주의 또는 교회 정치와의 문제 대한 개혁주의 신학자로서의 심각한 고민의 결과였다. 그리고 이 사건들은 박윤선을 “한국교회에 뿌리 내린 교권주의에 맞선 칼빈주의 개혁신앙의 대변자로 만들어 주었다.”³⁴⁾ 또한 이 사건들은 박윤선으로 하여금 현실 교회의 정치 현실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도록 만들었고, 한국교회를 위한 개혁주의적 교회론을 정립하는 데 자극을 주었다.³⁵⁾

32) 신복음, “성경의 사람, 한국의 나다니엘”, 『신학정론』 7권 2호 (1989), 12), 348.

33)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20년사 편찬위원회, 『합동신학대학원의 설립 이유』,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20년사』 (수원: 합동신학대학원 출판부, 2000), 135-151. 참조, 박용규, “한국 교회와 정암 박윤선 박사의 역사적 의미”, 174-5.

34) 박용규, “한국 교회의 정암 박윤선 박사의 역사적 의미”, 162.

35) 신민범, “정암 박윤선 박사의 개혁과 교회론 이해의 교회는 교육애로의 적용”, 『박사학위 논문,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2006』, 11-13.

IV. 한국교회의 바른 부흥을 위한 박윤선의 업적

한국교회의 개혁, 나아가 부흥을 염원했던 박윤선의 초심은 193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평양신학교 재학생이던 어느 날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한국교회를 위해 공헌할 수 있을 것인가?”³⁶⁾ 놓고 박윤선은 장교하기 시작했다. 그 명제를 늘 가슴에 담고 그는 일생 한국교회를 위해 살았고, 한국교회를 섬겼고, 한국교회를 목양했다. 그 결과, 그의 신학은 한국교회를 위한 신학이 되었다. 박윤규는 이러한 박윤선의 공헌을 높이 평가하는 교회사기들 중에 한명이다. “신학교 강의를 하든, 주일날 강단에서 설교를 하든, 그리고 주석을 집필하든 그 중심에는 자신의 신학이 교회를 위한 신학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흔들리지 않고 자리 잡고 있었다.”³⁷⁾ 그 모든 노고는 오직 한국교회의 바른 성장과 바른 부흥을 위한 것이니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의 대표적인 업적들을 신학교육, 성경주석집필, 강단설교, 기도의 삶, 경건의 삶 등으로 집약할 수 있으며, 이 업적들은 그가 한국교회 부흥을 위하여 “뺨에 사무치는 열정을 가지고 일생 동안 수행한 일”이었다.³⁸⁾

1. 신학교육

박윤선의 생애 전체는 신학생을 교육하는 교수로서의 삶이었다. 그가 신학교육에 첫발을 내딛은 것은 1936년 8월이었다. 미국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그 해 5월에 귀국한 박윤선은 그의 모교 평양신학교의 원어강

36) 박영희, “한국교회의 주경신학과 박윤선 주석의 의미,” 『경건과 학문』 (서울: 영음사, 1987), 80.

37) 박용규, “한국 교회와 잠암 박윤선 박사의 역사적 의미,” 1923.

38) 박윤선, “신학연구, 주석, 설교에 바친 생애,” 『신앙계』 (1983. 1), 39. 신복운은 박윤선 목사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좋아한 일은 바로 “신학교육과 성경주석과 설교하는 일” 등 세 가지 일이라고 했다. 신복운, “성경의 사람, 한국의 나다니엘,” 344-53.

사(1936.8-1938.7)로 신학생들을 가르치게 된다. 매사에 진실하고 열정적인 성격을 지닌 그가 성경 원어를 가르치는 데 정열을 쏟았음은 틀림없었을 것이다. 1941년 4월부터 1943년 7월까지 그는 민주 봉천신학원의 교수로 초빙받아 그곳에서 사역을 하였다. 해방 이후 1946년 6월 고려신학교 설립에 가담하면서 그해 9월에 개강한 이 신학교의 교수로서 1960년 10월까지 조직신학과 변증학, 주석과 원어 등 수다한 과목들을 강의하였다. 서울로 올라온 박윤선은 총회신학교에서 1963년 3월부터 1980년 11월까지, 1974년 11월 은퇴 이후 몇 년의 기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간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1980년 11월부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1988년 6월 30일까지 그가 설립한 합동신학교의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혼신을 다 하였다. 신학교육을 위해 그가 가르쳤던 학교들은 평양신학교, 민주 봉천신학교, 고려신학교, 총회신학교, 그리고 합동신학교이다. 1936년에 시작하여 1988년에 미쳤으니 헛수로 52년에 달하는 것이며, 해방 이후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신학교육 기간만 따져도 무려 42년(1946-1988)에 달한다. 그 기간 동안 강사, 교수, 교장, 원장 등 다양한 직무를 감당하였다.

42년간 박윤선은 교신과 총신 그리고 합신에서 신학교육을 통하여 한국교회에 개혁주의의 진수를 심어주교자 최선을 다하였다. “나의 교수 생활에 있어서 언제나 불타는 가슴으로 학생들에게 주고자 한 것은 칼빈주의 신학이다. 그 이유는, 칼빈주의 신학이어말로 성경을 그대로 믿는 말씀의 신학이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의 단 맛을 체험했으므로 후학들에게 나의 깨달은바 성경 진리를 전해 줌에 있어서 나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³⁹⁾ 주목할 점은 그의 신학교육이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단순한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의 강의는 언제나 어디서나 매우 열정적이었다. 아마도 박윤선의 꿈에 배어있는 뜨거운 영성 때문일 것이다. 다음의 글들은 그것을 증언해 주고 있다.

39) 박윤선, “신학교수 방법에 대하여,” 『성경과 나의 생애』 (서울: 영음사, 1992), 147.

그의 강의는 깨달은 지식의 전달만이 아니라 항상 복음의 정열이 불타고 있었다. 학생들은 매일 드리는 경건회 시간의 설교에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강의에서도 은혜를 받는 것이다. 그것은 신학 강의이면서도 동시에 일종의 부흥회였기 때문이다.⁴⁰⁾

이 학생들은 박윤선의 강의가 철저하게 칼빈주의적이었을 뿐 아니라 높은 영성을 지닌 것으로 기억하며, 자신의 스승을 선택과 영력을 겸비한 보기 드문 사람으로 격찬하였다. 그들은 특히 박윤선의 강의 스타일에 감명을 받았는데 이는 건조하고 형식적인 학문적인 강의가 아니라 마치 부흥회와 같은 열의가 있는 강의였다고 했다.⁴¹⁾

박윤선의 강의는 “때 시간 꼭 부흥회와 같았다. 눈물로써 기도하고 숨은 죄악들을 고백하였다. 교수와 학생 사이에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 사랑과 존경이 오갔다.”⁴²⁾ 이러한 현상은 이미 1950년에 있었던 고려신학교 부흥운동 이야기에서 살펴볼바 있다. 총회신학교나 협동신학교에서도 그러한 현상은 마찬가지로 계속되었다. 박윤선의 “감동적인 설교, 지칠 줄 모르는 기도, 부지런한 공부 같은 근면함, 현장감 있는 신학강의는 학생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다.”⁴³⁾

42년간의 개혁주의 신학자로서 박윤선의 뛰어난 신학 강의는 학생들을 사로잡았고, 그의 경건하고 뜨거운 영성은 학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이근삼 목사는 박윤선의 죽음을 애도하며 다음과 같이 그의 가르침을 회상하였다. “그 열정적 외침은 우리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였고 눈을 밝혀 주었습니다. ... 신학교 교단에서 교회 강단에서 증거하시던 외침은 언제나 미친기이었습니까. 그 외침이 우리들의 심금을 울리고 공감을 일깨워주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길을 일구어주셨던 것입니다.”⁴⁴⁾ 박윤선 박사의 밑에서 신학교육을 받고

40) 신복은, “경건의 사람, 한국의 다다니엘”, 345.

41)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 연구』, 211.

42) Ibid., 214.

43) 박용규, “한국 교회의 정암 박윤선 박사의 역사적 의의”, 158.

44) 이근삼, “그 기도소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신학정론』 7권 2호 (1989. 12), 326. 참조.

그분의 신학과 영성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는 과연 얼마나 될까? 틀림없이 계산하기 힘들 정도로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목회자가 되어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윤선의 신학교육은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을 전달하는 통로였으며, 나아가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길”로 헌신할 수 있는 부흥의 일꾼을 양성하는 일에 크게 공헌하였다.

2. 성경 주석 집필

박윤선 스스로 “평생 중요 사업은 신학교육과 성경 주석 사업”이라고⁴⁵⁾ 증언한 대로 성경 주석 집필은 그의 평생의 과업이었다. 박윤선은 개혁주의의 근본 원리를 “성경을 바로 깨달으려는 주의”라고 정의했다.⁴⁶⁾ 박윤선에게 있어서 “칼빈주의(개혁주의)의 기준(規準)은 성경이다. 칼빈주의는 성경에서 시작하고 성경으로 진행하고 성경으로 마감한다. 칼빈주의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맺는 데서 맺는다.”⁴⁷⁾

한국교회는 정경에 의해서 태동되었고 성경을 배우며 성경과 함께 성장하였다. 1907년 대부흥도 성경의 특별한 임계였던 동시에 성경 중심적 신앙운동의 결피였다. 이 대부흥운동의 주역인 블레어 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한국의 부흥운동과 성경의 관계를 기록하였다. “한국교회의 빠른 성장과 50년 이상 계속되는 부흥에 대한 특별한 설명을 묻는다면 저는 망설임없이 성경공부반(the Bible study classes) 활동이라고 말할 것입니다.”⁴⁸⁾ 여기서 말하는 성경공부반은

노진현, “말씀과 함께 산 중”, 『신학정론』 7권 2호 (1989. 12), 322.

45) 박윤선, “나의 생애와 신학”, 185.

46) 박윤선,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성경과 나의 생애』 (서울: 영음사, 1992), 79.

47) 박윤선, “바른 신학”, 『성경과 나의 생애』 (서울: 영음사, 1992), 200.

48) William N. Blair, *Gold in Korea* (New York: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1957).

초기 한국교회에 있었던 사경회를 말하는 것이다. 사경회가 1907년 대부흥운동의 실질적인 산실이였으며 부흥운동의 수단이었음은 매우 자명한 역사적 사실이다.⁴⁹⁾ 사경회를 통하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신앙을 더욱 공고히 다졌다.

그러한 한국교회를 섬겼던 박윤선 신학의 원천 역시 바로 성경 그 자체였다. 성경의 무오성과 성경의 유일한 권위에 대한 확신이 그의 신학의 출발점이었다. 따라서 주경신학자 박윤선에게 있어서 개혁주의 성경관과 해석관이 철저히 배어있는 성경 주석 사업을 그의 평생의 사명으로 알았고, 그 일을 어떤 다른 일보다 기쁨으로 감당했다. “나는 성경을 주석할 마음으로 늘 뜨겁게 되어 있다. 이런 소원이 있었기에 친구와 66권을 모두 해석할 수 있었다. 나에게 성경 주석사업보다 기쁨 일은 없다. 다른 일을 하면서도 속히 책상으로 돌아가 성경 해석을 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⁵⁰⁾

평생의 사명으로 여긴 주석집필 작업은 193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고린도후서』 출간을 시작으로 1979년 『에스라느헤미야에스더』를 출간함으로써 40년간의 각고의 노력 끝에 친구와 66권을 완성하였다.

고신대 이상규 교수는 박윤선의 66권 성경주석이 한국교회에 끼친 대중적 영향력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그의 성경 주석은 “학문적인” 동기에서 시도된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강단이 매머리지 않도록” 설교자들을 돕기 위한 “실천적인” 동기에서 시도되었기에 그의 성경주석에는 41편의 소논문이 특주 혹은 참고자료로 포함되어 있고, 1,053편의 설교와 다양한 예화 등 “설교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그의 주석은 사목의 목회자로부터 도회지의 학자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독자층을 얻고 있었다. 한국 목회자들의 서재에서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책이 박윤선의 주석임을

이루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의 방대한 저술과 30여 년간의 신학교육과 목회적 활동을 통해 개혁주의 신학을 공표하고 가르치고 대중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주었다.⁵¹⁾

이상규의 말처럼, 박윤선의 성경주석은 한국 목회자들 사이에 광범위한 독자층을 형성해 주었으며, 따라서 그 독자들에게 끼친 대중적 영향력은 매우 지대한 것이다. 박윤선의 성경주석이 대중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그의 성경 해석관과 성경관의 대중화를 의미한다.

첫째, 박윤선의 성경주석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함을 한국교회에 일깨워 주었다. 박윤선은 이 주석 집필의 동기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의 주석 저술의 동기는, 나 자신이 먼저 성경을 바로 깨닫고 깊이 안 후에 이 성경을 올바르게 증거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성경대로 믿음을 가지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⁵²⁾

이 말은 집필자 자신을 포함하여 한국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먼저 성경을 깊이 알아야만 남들에게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게 할 때에 올바른 부흥이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성경을 성경의 본 뜻대로 바로 해석하여 그대로 믿으며, 그 내용대로 실행할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아가고 인류에게는 유익이 있다. 주님의 교회는 이 신앙노선에서 참다운 발전을 하게 된다.”⁵³⁾ “성경을 바로 깨달으려는 주의”라는 개혁주의 근본원리를 그의 주석 작업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박윤선의 성경주석의 의의를 신복운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73.

49) 이호우, 『역사적 맥락으로 살펴본 한국교회의 1907년 대부흥운동과 영성』, 『역사신학논총』 11집 (2006), 247-9.

50) 박윤선, “나의 생애와 신학”, 187.

51) 이상규, “교회학적 관점에서 본 박윤선의 설교”, 『정암 박윤선의 설교』 (수원: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출판부, 2006), 40.

52) 박윤선, 『성경과 나의 생애』, 160.

53) 박윤선,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79.

그는 한국교회가 혼란에 빠져있는 것은 성경 연구와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이 빈약하고, 흥분 위주의 부흥회에 도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확신했던 분이랴 진리를 믿고 올바르게 전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항상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⁵⁴⁾

박윤선은 한국교회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의 주석을 집필한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해석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지만, 인간편에서 해야 할 일이다. 그것은 성경을 바로 깨닫고 바로 해석하는 노력이다. 즉 성경 해석에 필요한 준비공부를 확실하게 해야 하며, 바른 기도생활과 성경대로의 진실한 삶과 특히, 성령님의 감화력을 간절히 구해야 한다.”⁵⁵⁾

물론, 박윤선의 성경주석은 개혁주의 성경관을 한국교회에 가르쳐 주었다. 그는 평생 “오직 성경만이 정확무오(正確無誤)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확신하고 성경을 바로 알고 그대로 전하는 것이 사도적 진도라고 믿으며, 지금까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왔다.”⁵⁶⁾ “나는 한 평생 성경 무오의 진리를 믿고 성경을 해석하는 중 때로는 자유주의자들의 잘못된 주장을 비판하여 왔다.”⁵⁷⁾ 이와 같은 박윤선의 성경관은 그의 성경주석에 그대로 녹아 있다. 때문에 박윤선의 주석이 “자유주의의 성경적 입장을 막아주는 카다란 울타리를 치는 데 성공”했으며, “칼빈주의 개혁 신앙의 입장을 밀해줌으로써 더욱 더 개혁 신앙을 지극”시켜 주었다는 박영희의 평가는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된다.⁵⁸⁾

54) 신복운, “성경의 사람, 한국의 나다니엘,” 349.

55) 박윤선, 『성경과 나의 생애』, 80-81.

56) Ibid., 69.

57) Ibid., 86.

58) 박영희, “한국의 주경신학과 박윤선 주석의 의미,” 85; 박용규, “한국 교회의 정암 박윤선 박사의 역사적 의미,” 190-1; 이상규, “교회사적 관점에서 본 박윤선의 설교,” 60.

3. 강단 설교

박윤선은 신학자일 뿐만 아니라 설교자였다는 것은 이미 정평이 나왔다. 그에게 있어서 신학교수 사역과 설교사역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신복운의 말처럼 “그는 기도 없이 못 산 것처럼, 설교 없는 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⁵⁹⁾

첫째, 그는 강단의 설교자였다. 박윤선은 신학자이면서도 평생 설교자로서 목회의 길을 걸었다. 동산교회(1961-1964), 부산 성신교회(1965-1967), 그리고 한성교회(1968-1973) 등의 강단을 설교자로 꾸준히 지켰으며, 그 외의 시기에도 그는 주일마다 교회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일을 거의 쉬지 않았다. 박윤선 목사의 목회 활동은 일반적인 목회이기보다는 설교로 삼기는 목회라 할 수 있다.⁶⁰⁾ 목회자를 키우는 신학교 교수는 반드시 목회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박윤선은 생각했다.

교수가 목회 경험이 있어야만 신학생들에게 강의할 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인도하는 방법과, 신자들을 영혼 상대로 접촉하여 성경 말씀을 떠여주는 일을 바로 하도록 학생들을 도와 줄 수 있다.⁶¹⁾

때문에 박윤선은 교수 사역을 하는 동안에도 주일이면 거의 매주인 설교사역으로 목회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신복운 교수가 증언하는 바와 같이, “그는 설교하기를 그렇게 좋아하였다. 흔하디 흔 설교를 기피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는 설교 부탁을 받았을 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거절하는 법이 없었다.”⁶²⁾ 이 사실은 정암 자신이 그의 자서전에서 이미 밝힌 바 있기도 하다. “나도

59) 신복운, “성경의 사람, 한국의 나다니엘,” 87.

60) 정성규, “목회적 관점에서 본 박윤선의 설교,” 『정암 박윤선의 설교』(수원: 함동신학대학원대학교출판부, 2006), 17-26.

61) 박윤선, “신학 교수 방법에 대하여,” 248.

62) 신복운, “성경의 사람, 한국의 나다니엘,” 88.

어디에서 신학교육을 하든지 목회를 하려고 함쳤고, 교회를 개척하기도 했다. 나는 지금까지 주일마다 교회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일을 거의 쉬지 않고(건강이 허락된 한) 계속한 것으로 기억한다.”⁶³⁾ 그래서, 합동신학교 시절, 매일 있는 경건회에 교수들이 한 달에 한번 정도씩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지만, 박윤선에게는 매주 금요일마다 경건회 설교가 주어졌다. 이것은 설교를 너무 좋아하는 그에게 주어진 특혜였다.

물론, 박윤선은 설교 집필자였다. 수많은 설교를 집필하고 출간함으로써 한국교회 강단을 풍요롭게 해주었다. 고려신학교 교지 『파수군』에 40편의 설교, 정경주석에 1,053편의 설교, 그리고 37개의 설교집 『영생의 원천』(1970), 『응답되는 기도』(1974), 『주님을 따르자』(1975)에 240편의 설교가 수록되어 있다. 그 외에도 171편의 설교가 녹음 테이프에 보존되어 있다. 이 자료들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의 설교는 총 1,512편에 달한다.⁶⁴⁾ 이 수많은 설교들이 갖는 의의와 영향에 대하여 박영희와 박용규는 각기 이렇게 평하였다.

그의 주석서는 1,000여편이나 넘는 그의 설교는 한국교회 강단에 크게 밑거름이 되었으며, 목회자들에게 많은 자료를 제공해 왔다.⁶⁵⁾

그가 주석에 1천여 편이 넘는 설교를 첨부한 것도 자신의 주석이 교회 강단을 성질 수 있기를 바라는 염원 때문이었다. 목회 일로 분주한 목회자들에게 그의 주석은 설교 준비를 위한 참고서 차원을 넘어 실제로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었다. 강단을 풍요롭게 만들어준 것이다.⁶⁶⁾

63) 박윤선, “신학교수 방법에 대하여,” 148.

64) 출처, 이근삼, “교회사회 관점에서 본 박윤선의 설교,” 59; 정창근, “설교학적 관점에서 본 박윤선의 설교,” 『정암 박윤선의 설교』(수원: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출판부, 2006), 81.

65) 박영희, “한국교회 주경신학과 박윤선 주석의 의의,” 85.

66) 박용규, “한국 교회와 정암 박윤선 박사의 역사적 의의,” 193. 참조: 이종경, “정암 박윤선의 설교연구,” 『역사학위논문, 평택대학교, 1998』, 1-2, 28-30.

그가 집필한 모든 설교들은 박윤선 자신의 신학적 확신과 신앙적 체험의 산물이었다. 이 설교들은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은 물론이고 평신도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셋째, 박윤선은 설교가 주는 영적 각성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었다. 1970년 진행된 자신의 첫 설교집 『영생의 원천』 머리말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성경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깨닫는 순진에 생명의 약동을 느낀다. 그 생명의 움직임을 말할 때에 설교가 된다. 설교는 강연도 아니고, 변론도 아니고, 영적 생명의 움직임이다. 이와 같은 역사는, 간절한 기도와 성경에 대한 경건한 연구와 특별히 그 말씀 순종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물로 임하는 성령의 열매이다.”⁶⁷⁾

이근삼 목사는 “한 말씀 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의 말씀을 주석적으로 밝혀주시는 말씀들은 성경 원어의 깊은 지식과 끊임없는 연구의 열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사랑을 깊이 감사하면서 기도로써 확신하시고 영혼들을 사랑한 진정에서 나오는 영감있는 가르침과 외침이었습니다”⁶⁸⁾ 박윤선의 감회력 있는 설교를 높이 평가했다. 설교는 영적 생명의 움직임이다. 설교에는 그와 같은 능력이 나타난다. 박윤선은 그러한 확신을 담담히 가졌고, 그러한 확신 속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였다. 때문에 그의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제자들은 “통곡의 회개를 한 경험”과 “기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⁶⁹⁾ 여실히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체험은 1950년 고신에서 그의 설교를 통해 일어났던 회개 기도운동 체험과 같은 것이 틀림없다.

요약하면, 강단과 교단의 설교자, 설교 집필자, 영혼을 일깨우는 그의 설교 등과 같은 박윤선에 대한 수식어들은 한국교회의 강단을 풍요롭게 하는 부흥의 원천들이었으며, 한국교회 성도들을 일깨우는 감회력이었다.

67) 박윤선, 『영생의 원천』, 5.

68) 이근삼, “그 기도소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325-6.

69) 유영기, “정암 박윤선의 신학,” 『죽산 박영통과 정암 박윤선』(수원: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2005), 348.

4. 기도의 삶

박형용 교수는 “정암을 이는 사람은 그가 기도의 사람임을 입증한다. 기도는 그의 생활이었고 그의 호흡이었다. 그의 생애에 기도없는 하루가 없을 만큼 그는 힘 있게 그리고 항상 기도했다. ... 합동신학교 강당 입구에 ‘죽도록 기도하라’는 표어는 정암의 정신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했다.⁷⁰⁾ 박윤선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숭실전문학교 재학 시절부터 그는 몇몇 친구들과 기도 모임을 구성하여 매일 새벽 모란봉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그때 그는 기도의 사람으로 동료들 사이에 이미 정명이 나 있었다.⁷¹⁾

나는 산과 들을 좋아한다. 그 이유는 그곳에서 기도하려는 의욕 때문이다. 산을 보든지 나의 마음에는 ‘저기에 가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욕이 일어난다. 나는 주제를 구입할 때에도 산 가까이 위치한 집을 원한다. 그것은 내가 현재의 곳에서 기도하기 위함이다.⁷²⁾

이근삼은 “그 기도 소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라는 제목의 박윤선 강해식 조사에서 “그분은 언제나 기도하시던 분이셨음을 기억하며 연구실에서 말씀 연구와 강의 준비 중에 말씀 앞에 묵 놓아 큰 소리로 기도하시던 그 소리를 기억합니다. 앞으신 자리에서 홀리나오면 그 기도 소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며 애도하였다.⁷³⁾ 정성구 역시 박윤선의 죽음을 추모하며 “그의 서재에는 기도 소리가 끝나지 않았다. 사실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70) 박형용, 『박윤선 박사의 잠언적 표현』 『신학정론』 7권 2호 (1989. 12), 300. 참조: 박윤선의 기도에 관한 학술적 가치를 지닌 다음의 글을 보라. 김영희, 『박윤선의 기도』 『신학정론』 14권 2호 (1996. 11), 244-300.

71) 방지일, 『우리에게 있는 나다니엘』 『박윤선의 생애와 사상』 (수원: 합동신학교출판부, 1995), 46. 참조: 박윤선, 『나의 생애와 신학』, 171; 박윤선, 『나의 생애와 기도생활』 『성경과 나의 생애』 (서울: 영음사, 1992), 167-8.

72) 박윤선, 『나의 생애와 기도생활』, 167.

73) 이근삼, 『그 기도소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325.

한 평생 자기 자신을 불태운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살기를 원했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연구를 전무하시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것이다. 그는 종신 뒷동산에 기도실을 마련하고 담요 한 장을 바닥에 깔고 힘있게 뜨겁게 기도하시던 주의 종이였다”고 회상했다.⁷⁴⁾ 박윤선은 고신에서 회개 기도운동으로 신학생들을 일깨웠고, 종신 시절에는 학교 뒷동산을 기도의 골방을 여기며 기도의 본을 보였다. 합신에서 봉직할 때도 기도를 강조했고, 기도를 실천했다. 학생들에게 “죽도록 기도하라”고 설교했고, “기도하다가 죽었다는 말을 들어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⁷⁵⁾ 그의 무릎은 신학교육과 정경주석과 설교를 위해 늘 정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무릎이었다. 그리고 “기도”는 그의 주석과 설교에서 가장 많이 다룬 주제였다.⁷⁶⁾ 그는 평생 기도를 좋아했고 기도를 실천하며 살았다. 그의 생애는 한마디로 기도의 삶이었다.

특히 신학생들 또는 목회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며 기도의 삶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의 저서전에 이와 같은 글을 남겼다. “신학운동은 학문운동이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는 운동이다.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운동은 동시에 기도운동이어야 한다. 기도없는 연구작업은 마침내 인본주의로 떨어지게 된다. 참된 기도로 뒷받침하는 신학연구는 동시에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다.”⁷⁷⁾ 두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기도가 신학운동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신학운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참된 기도가 “경건의 능력”을 소유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신학연구에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박윤선의 논지이다.

기도는 부흥운동의 중요한 요인들 중에 하나이다. 말씀과 부흥의 관계처럼

74) 정성구, 『고 정암 박윤선 박사를 애도함』 『신학정론』 7권 2호 (1989. 12), 331.

75) 신복윤, 『성경의 사람, 한국의 나다니엘』, 349.

76) 김영희, 『박윤선의 기도』 『신학정론』 14권 2호 (1996. 11), 256-9.

77) 박윤선, 『성경과 나의 생애』 (서울: 영음사, 1992), 95-96.

기도의 부흥은 매우 밀접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 시도행진 2경에 나오듯, 120명 성도들은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와 부흥을 경험하였다. 기도를 통해서 영성이 넘치는 삶을 살이갈 수 있다는 의미이다. 기도는 초기 한국교회의 대부흥(1903~1907)의 가장 강력한 동인들 중에 하나였다.⁷⁸⁾

박윤선은 총신의 졸업식 훈사를 통하여 장차 한국교회를 이끌이갈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다시 한 번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을 강조하였다. 기도를 통하여 한국교회 증흥의 견인차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간곡한 부탁이었다.

명심할 것은 기도로 해나가야 됩니다. 기도로 해나가야 됩니다. 기도로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총신대학의 졸업생들은 어디를 가든지 “기도로 해결한다. 기도로 믿고 나간다. 기도로 정령한다.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하는 이러한 정령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어서 항상 기도하며 힘써 기도하는 자세로 참된 기도를 하는 사람들로써 모본이 되고 반드시 승리를 거두어서 우리 교계의 우리 사회와 우리나라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복주어서 되는 그런 일들이 수다히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⁷⁹⁾

신학생과 목회자들이 기도의 모범이 되고 기도의 능력을 터득하게 될 때, 비로소 교회 부흥의 피수군 그리고 그리스도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기도없이 부흥도 없고 기도없이는 경건의 능력도 없고 그리고 기도없는 성경연구와 복음전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한 해 전 1987년 『신학정론』에 발표한 글에서 이 부분을 명료하게 밝혔다.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들은 성경 연구도 여기 ‘하나님과 교동함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성경 연구는 심령(heart)보다 이지(reason)가 주체로 역할하기 쉽다. 따라서 그것은 전인격이 관계되는 경건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성경연구는 절대로 필요하지만 기도 없이는 완전치

78) 이호우, “역사적 맥락으로 살펴본 한국교회의 1907년 대부흥운동과 영성,” 249-52.

79) 박윤선, “기도를 힘쓰자”(대장 4:9-10) 『박윤선 목사 설교 테이프』(영음사), 개인용, 김명익, “박윤선의 기도,” 298.

못하다.”⁸⁰⁾

5. 경건의 삶

합신의 설립 정신은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이다. “바른 생활”(벤후 3:10-13)에 대한 그의 글에서 박윤선은 경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경건”으로 번역된 헬라어 유세베이아(kétreia)는 ‘종게 불란다’는 어원적 의미를 가진다. 신지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Coram Deo) 설어야 된다(고전 10:31). 그뿐 아니라 그는 특별한 자리, 곧 장신 차려 성경을 읽음과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된다. 이 두 가지는 경건 생활의 원천이다. 그는 이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좋은 놀람을 체험하게 된다.⁸¹⁾

칼빈을 경건의 신학자 그리고 그의 신학을 경건의 신학(theologia pietatis)라고 부른다.⁸²⁾ 칼빈주의 신학과 신앙을 이 땅에 정착시키려는 개혁주의 신학자 박윤선의 생애는 비로 경건을 추구하는 삶이었다. 그에게 있어서 경건의 원천은 믿음과 기도였다. 손봉호 교수는 박윤선을 “순수한 신앙의 사표”라며 그의 삶을 기렸다.

박윤선 박사님께서서는 학문이 경건으로 이어지고 경건과 온전히 융화되어 있었다. “이론”과 “실천”은 그에게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었고, 신학과 신앙이 혼연일체를 이루었다. 바로 그 때문에 그를 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도의 감화를 끼쳤고, 한국교회 어느 지도자보다 더 실천적이고 더 큰 영적

80) 박윤선, “경건이 가르치는 기도생활,” 『신학정론』 5권 1호 (1987. 5), 9-10; 박윤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히 4:14-16),” 『성경주석 히브리서』(서울: 영음사, 1965), 48.

81) 박윤선, “바른 생활,” 『성경과 나의 생애』(서울: 영음사, 1992), 222-3.

82) 김계성, 『개혁신학의 꿈』 제1권 (서울: 이데서인, 2001), 157-65.

관위를 행사하였다. 그와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있어도 그분의 신실함과 정직함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⁸³⁾

경건은 박윤선의 삶 지체였을 뿐만 아니라, 신학교육의 핵심이기도 했다. 합신의 설립과정에서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박윤선의 확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박윤규는 그 상황을 이렇게 이해하였다. “박윤선이 교리피와 합동을 떠나오면서, 또 현금의 수많은 교단 지도자들과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만나면서 피부로 경험한 가장 시급한 한국교회 문제는 학문이 아니라 ‘신앙 인격’을 갖춘 목회자 양성이었다. 신학교에서 학문이 중요하지만 학문 일변도의 신학에는 인젠가 자유주의로 떨어질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경건이 살아 숨 쉬는 신학교육을 구현하기를 원했다.”⁸⁴⁾ 따라서 합동신학교는 반드시 “경건 이 교육의 중심”⁸⁵⁾ 있어야 하고, “경건을 연습하는 학교”⁸⁶⁾ 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피력하였다. 합동신학교가 교권주의로부터 자유로운 신학교, 순결한 개혁주의 신학이 살아 숨 쉬는 신학교, 그리고 경건의 도를 일깨우는 신학교가 되기를 박윤선은 간절히 염원하였다.

신학교육뿐만 아니라 교회 역시 경건의 훈련장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했다. “교회는 세력 단계가 아니요 증거 단계이니 만큼 양(量)보다 질(質)을 앞세워 신자들의 성화(聖化)를 중요시해야 된다”⁸⁷⁾ 주장함으로써 신자들의 경건(또는 성화)한 삶에 대한 교회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박윤선의 “경건 신학”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유명기 교수의 최근 논문은 “진실” “겸손” “기쁨과 고난” “회개” 등 네 가치를 경건한 삶에 대한 정암의 가르침으로 집약했다. 나아가 “성도의 경건한 삶에 대한 정암의 기여”를 유명기는 세 가지로 요약했는데,

83) 손봉호, “순수한 신앙의 사표,” 『신학정론』 5권 1호 (1987. 5), 333.

84) 박윤규, “한국 교회의 정암 박윤선 박사의 역사적 의미,” 176.

85) “박윤선 학장과의 인터뷰,” 『합동신학보』 1980년 12월 30일; 『합동신학대학원 20년사』, 167.

86) 『합동신학보』 1981년 9월 5일.

87) 박윤선, “교회 개혁의 정암과 교리문제,” 233.

그 중에 하나를 살펴보자. “셋째는 하나님 면전 의식 가운데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도 경건한 삶을 사는 것처럼 가장하고 경건을 육체의 유익을 위한 계몽로 삼을 위험을 설교와 주석과 신학교 교육을 통하여 시시때때로 지적하고 깨우침으로 한국교회 특히 사역자들의 경건한 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자신이 그 모델로서 살았습니다.”⁸⁸⁾ 경건을 삶의 방향으로 삼았던 박윤선의 전 생애는 학문과 신앙이 혼연일체를 이룬 삶이었고, 말씀과 기도가 병행된 삶이었다.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그의 가르침은 그의 경건한 삶의 원동력이었음이 틀림없다.

V. 맺는 말

1907년에 일어난 대부흥 10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교회는 총체적으로 부흥을 크게 외치며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 이 기념비적인 해에 한국의 대표적인 개혁주의 주경신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박윤선 박사의 공헌들 중에서 한국교회 부흥에 영향을 준 그의 업적들을 정리하는 작업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사료된다. “부흥”이란 단어보다는 “개혁”이란 단어를 더 좋아했던 그는 평생 한국교회의 개혁을 염원하며 한국교회의 부흥운동에 앞장섰다. 그러면서도 말씀과 기도에 많은 시간을 보내며 남을 비판하는 일은 멀리하고 자기 개혁과 자기비판을 우선적으로 항상 강조하였다. 그의 부흥의지 또는 개혁의지는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이라는 슬로건 안에 명백히 담겨져 있다. 박윤선은 “말씀과 같이 사시고 말씀과 같이 동행하시고 명백히 담겨져 있다. 가 하나님님의 부름을 받았다”⁸⁹⁾ 노진현 목사는 회고했다. 그러한 박윤선의

88) 유명기, “정암 박윤선의 신학,” 341. 이 논문에서 유명기 교수는 “정암의 경건신학”이란 제목으로 23쪽에 걸쳐 연구하였다(319-341).

89) 노진현, “말씀과 함께 산 중,” 『신학정론』 7권 2호 (1989. 12), 321.

삶이나 학문은 개인적 경건을 이루는데 그 가치가 있지 않다. 오히려 그의 삶과 학문은 바로 한국교회를 위한 삶이며 신학이었다. 말씀과 기도로 중단없이 한국교회를 섬겼으며 일개웠다. 그는 제2의 김선주도 아니고 제2의 김익두도 분명 아니다. 하지만 박윤선은 신학자요, 성경주석가요, 설교자요, 기도자요, 경건한 신자로서 한국교회의 부흥과 개혁을 위해 평생을 바치신 분이다. 그분의 정신이 되살아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들어보자. “오직 기도에 집중하고 몸부림치던 그의 삶, 인간의 자율주의가 아니라 초지일관 깨시의존 사색에서 나오는 확신있는 설교, 그리고 무드럽고 은회하면서도 천하지 않는 고상한 인품, 성경을 균형있게 이해하도록 하는 개혁주의 신학, 이 모든 것들이 ‘경건의 능력’인 바, 다시금 한국 목회자들을 통해서 되살아나야 한다.”⁹⁰⁾ 현재의 한국교회가 꿈꾸는 부흥 재현은 분명 양적 팽창만은 아니다. 일본주의와 세속주의 그리고 다원주의가 편만해져 가는 이 시대에 필요한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과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단련된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의 회복이다. 바로 그 정점에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사셨던 박윤선 박사가 우뚝 서있음을 한국교회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정임신학강좌

구약성경의 신앙부흥과 한국교회

[현 장 학 | 구약신학 · 조교수]

1. 연구의 배경: 평양대부흥 100주년

한국교회가 경험한 1907년의 평양대부흥은 새로 자리나는 한국교회에 새로운 영적 활력을 불어넣었고 향후의 성장과 발전에 기틀과 추동력이 되었다.¹⁾

1) 사설 평양대부흥은 독립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고 이미 준비된 다른 사건들의 연속선상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의 대부흥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부흥의 불길은 한국 여기저기서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1903년 일산에서는 캐나다 의료선교사인 하디(R. A. Hardie, 河鯉洑) 선교사의 회개와 설교를 통해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아 회개하며 복음을 받아들였다. 1904년 봄 일산에서 다시 초교파적인 사경회가 열려 다시 한 번 부흥이 있었다. 이어 1906년 8월에는 평양의 교회들이 하디를 사경회 강사로 초빙하여 원산의 경험에 관해 은혜를 나누고, 또 뉴욕에서 온 존슨 목사(Rev. Howard Agnew Johnson)를 통하여 인도의 웨일즈(Wales)에서 일어난 부흥에 관한 보고를 듣고 자신들의 교회에도 그와 같은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였다. 1906년에는 중부지방인 송도(松都, 개성)에 부흥이 일어났다. 그리고 같은 해 서울과 북포에서도 선교사들이 인도하던 사경회를 통해 교인들이 통해 회복하고 기도에 불이 붙는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 이어 1903년에 원산 지역에서 시작된 부흥은 각 지역의 사경회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1906년과 1907년에 이르러서는 전 한국교회가 사경을 회개시키려는 크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인데 이 운동의 정점에 평양대부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평양 장대현교회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아무 준비도 없는 곳에 갑자기 부흥이 일어난

90) 김재성, “경건한 인격에 담긴 기도와 개혁주의 신학,” 『정암 박윤선의 설교』 (수원: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출판부, 2006), 214.